



# 일제침략기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과 크리스마스 씰(Christmas Seal)을 통해 본 한일관계에 대한 고찰

日帝侵略期の宣教師シャウドホールとクリスマスシルを通してみた韓日関係についての考察

---

저자 신동규  
(Authors)

출처 [한일관계사연구 46](#), 2013.12, 189–226 (38 pages)  
(Source)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46](#), 2013.12, 189–226 (38 pages)

발행처 [한일관계사학회](#)  
(Publisher) The Korea–Japan Historical Socie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343562>

APA Style 신동규 (2013). 일제침략기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과 크리스마스 씰(Christmas Seal)을 통해 본 한일관계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46, 189–226.

이용정보 동아대학교  
(Accessed) 168.\*\*\*.252.116  
2018/07/27 15:5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일제침략기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과 크리스마스 씰(Christmas Seal)을 통해 본 한일관계에 대한 고찰\*

신동규\*\*

## 【국문초록】

본고는 일제침략기의 선교사 셔우드 홀과 그가 제작한 1932년부터 1940년까지의 크리스마스 씰을 소재로 삼아 ‘씰’의 발행 과정 속에 일본의 어떠한 통제가 있었고, 왜 1940년에 ‘씰’ 발행이 중단되었는지를 고찰한 것인데, 요약하면 다음의 두 가지 점이다.

첫째는 셔우드 홀 박사가 해주구세요양원에서 1932년에 발행한 첫 번째 ‘씰’은 원래 거북선 도안이었지만, 일본 측의 승인 거부로 인해 남대문으로 변경되었고, 여기에 한국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하는 일본의 통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씰’ 발행의 목적을 볼 때, 당연히 결핵퇴치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크리스마스 씰 수집가인 南相旭님([주]윤영방재엔지니어링 대표이사)으로부터 후술하는 하세가와의 도록을 비롯해 셔우드 홀의 ‘씰’ 홍보에 관한 영문자료 및 1940년의 초판 ‘씰’을 비롯해 귀중한 소장품과 자료를 제공 받았음과 동시에 열람의 기회를 얻었다. 또한, ‘씰’ 수집가고 서원석님의 손자인 서동욱님께서 일제침략기의 씰첩과 전지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양도받았고, 세계에 2개뿐이 없는 1940년의 초판 ‘씰’ 폐인 (4×2)의 사진을 제공받았으며, 대한결핵협회 홍보기금과의 박연숙님으로부터는 『보건세계』의 논문을 비롯해 결핵협회 60주년기념 도록인 『한국의 크리스마스 씰』(대한결핵협회, 2013)과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를 위한 순수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지만, 거북선과 같은 반일적인 요소나 식민지였던 한국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씰’이라 할지라도 용인될 수 없었던 당시의 통제된 사회상의 일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둘째는 1940년 일제침략기의 마지막 ‘씰’의 발행과정에 보이는 일본 군부의 도안 통제와 홀 박사의 반강제적 추방에 관한 문제이다. 1940년은 일본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된 직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홀 박사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는데, 이 때 발행된 ‘씰’ 또한 마찬가지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1940년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씰’의 인쇄까지 끝마쳤으나 군부에서는 이를 전부 압수했고, 그 이유는 ‘씰’ 도안상의 두 어린아이, 높이 20미터 이상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눈 덮인 산과 마을, 서력 연도의 사용이라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홀 박사와 반군부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와의 관계를 의심한 육군현병대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염두에 두면 ‘씰’의 도안 통제와 도안 변경에 관한 일본 군부의 압박은 홀 박사를 탄압하기 위한 일종의 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홀 박사가 출국하게 되면서 한국에서의 ‘씰’은 1949년에 다시 발행되기까지 완전히 중단되었다.

### 【주제어】

셔우드 홀, 크리스마스 씰, 해주구세요양원, 엘리자베스 키스, 오다 야스마, 거북선, 남대문, 결핵퇴치.

### ◆ 차례

1. 머리말
2. 1932년 ‘씰’의 탄생과 일본의 도안 통제
3. 1933년~1939년 ‘씰’의 제작과 발행
4. 1940년 일제침략기 최후의 ‘씰’과 일본의 도안 통제
5. 맷음말

## 1. 머리말

본고는 일제침략기에 캐나다인으로 감리교의 선교사였던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 이후 ‘홀 박사’로 약칭)과 그에 의해 한국 최초로 발행된 ‘크리스마스 썰’(Christmas Seal, 이하 ‘썰’로 약칭)을 소재로 ‘썰’의 도안 설정이나 그 발행 과정 속에 어떠한 한일관계가 내재되어 있었는가에 대해 고찰해본 것이다.

홀 박사는 평양에서 최초로 평양기독병원을 개설한 부친 윌리엄(William James Hall)과 모친 로제타(Rosetta Sherwood Hall) 사이에서 1893년 11월 10일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캐나다에서 의학공부를 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救世病院과 海州救世療養院을 운영하였다.<sup>1)</sup> 그의 부친 윌리엄은 평양에서 선교와 의료 활동을 하였으며, 청일전쟁 중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과로로 1894년 11월 24일 순직하였고, 모친 로제타는 후에 서울에 와서 동대문부인병원(현 이화여자대학부속병원), 경성여자 의학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부속병원) 및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인천분원(현 인천기독병원)을 창설한 것으로도 유명하다.<sup>2)</sup>

한편, ‘썰’은 홀 박사에 의해 1932년 12월 3일에 처음으로 제작되었으며, 1928년 10월 27일 폐결핵 퇴치를 위해 황해도에 세워진 ‘海州救

- 
- 1) 닉터 셔우드 홀 저/김동열 역, 『닥터 홀의 조선회상』(좋은씨앗, 2003), 461-488쪽 ; 「全朝鮮肺結核撲滅코져 크리스마쓰·썰 發行」(동아일보, 1932년 11월 28일자 기사) ; 대한결핵협회편집부, 「썰 운동의 유래와 현황」(『보건 세계』38-11, 대한결핵협회, 1991). 또한 海州救世療養院과 닉터 홀의 활동에 대해서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의 부록 「닥터 홀 일가 중요연표」(730-733쪽)와 神學指南編輯部, 「朝鮮初有의 肺病治療所인 海州救世療養院을 紹介함」(『神學指南』12-1, 神學指南社, 1930) ; 해주시지편찬위원회, 『海州市誌』(海州市中央市民會, 1994), 474-481쪽 참조.
- 2) 서원석,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 서원석 개인자료집, 2-3쪽 ; 이창성,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1)」(『보건세계』406, 대한결핵협회, 1990).

世療養院’에서 발행되었다. 1932년부터 1940년까지 9차례에 걸쳐 발행되었는데, 이러한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필자가 어린 시절부터 우표와 ‘씰’을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제침략기의 ‘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씰’의 발행 과정 속에 보이는 한일관계에 대한 논증이 없다는 점, 또 지금은 수집하기도 힘든 귀중한 ‘씰’ 자료들이 외국에 산재해 있다는 점, 더욱이 한국의 ‘씰’에 대해서 일본인 2세인 미국인 하세가와 조세핀(Stephen J. Hasegawa)이 전문적인 수집의 차원을 넘어 가장 체계적인 도록<sup>3)</sup>을 발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세가와의 도록에 대해서는 ‘씰’ 수집가인 남상욱도 “99%의 거의 완벽한 자료를 계재하고 모든 자료에 대해 평가(\$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세가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1932~1940년까지 발행된 9년간의 ‘씰’ 전지에 대해 수많은 ‘버라이어티(Variety)’를 전부 조사하여 이를 모두 분류한 것입니다.”<sup>4)</sup>라고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의 전문수집가들 사이에서 일제침략기의 ‘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표와 ‘씰’ 수집가인 이창성이 1932년 이래 ‘씰’의 유래와 종류, 초판과 재판의 분류 등에 대해 밝히고 있고,<sup>5)</sup> 남상욱은 ‘씰’의 분류와 판본의 규명, 도안자에 대한 명확한 논증을 통해 일제침략기의 ‘씰’을 규명하고 있다.<sup>6)</sup> 그렇지만, 위의 연구를

3) Stephen J. Hasegawa, 『Dr. Sherwood Hall's Christmas & New Year Seals of Korea: 1932-1940』(개인출판물, 2006), 전체 78쪽. 본 도록은 개인 제본 도록으로 출판사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4) 南相旭, 「일제강점기 씰의 독보적인 자료 - Hasegawa Catalog」(대한우표회, <http://cafe.daum.net/KorPhilSociety/>, 2013년 8월 21일 개재).

5) 이창성, 「韓國의 크리스마스 씰 夜話(1)~(9)」(『보건세계』37-6~38-2, 대한결핵협회, 1990~1991).

6) 남상욱, 「씰 단상(斷想)-한국 최초의 씰 이야기」(『보건세계』56-5, 대한결핵협회, 2009); 동, 「씰 단상(斷想)-일제시기의 씰 디자이너 “엘리자베스 키스”의 예술세계」(『보건세계』57-1·2, 대한결핵협회, 2010); 동, 「운보 김기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1932년에 ‘썰’을 발행한 셔우드 홀과 결핵퇴치(보건사업)를 위한 ‘썰’의 소개, 또는 희귀 수집품으로서 ‘썰’의 분류와 특이성을 소개하거나 디자인을 검토한 소개 중심의 글이었으며,<sup>7)</sup> 당해 시기의 ‘썰’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찰하거나 ‘썰’의 도안과정에서 통제와 간섭을 행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비롯해 셔우드 홀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제침략기의 ‘썰’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대륙침략이 이루어지던 1932년이라는 시점에 한국 최초의 ‘썰’ 도안이 왜 거북선에서 남대문으로 변경되어 발행되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제침략기 ‘썰’의 발행과정을 총체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일제침략기 최후의 ‘썰’이라고 할 수 있는 1940년도 ‘썰’의 발행 과정 속에서 일본 측의 어떠한 통제와 간섭이 있었는가, 또 홀 박사가 강제출국의 형식으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다만, ‘썰’을 소재로 한 역사학계의 연구가 전혀 없어 필자 스스로도 주저함과 연구에 대한 일단의 조악함을 느끼고 있지만, ‘썰’이라는 일종의 특수 자료를 통해 일제침략기의 보

---

창 화백이 썰 디자이너?」(『보건세계』57-5, 대한결핵협회, 2010) ; 동, 「썰 단상(斷想)-1935년 썰의 도안자는 누구인가?」(『보건세계』57-6, 대한결핵협회, 2010).

7) 이종학, 『肺結核·問答式』(壽文社, 1958), 164-165쪽 ; 金光載, 「한국 크리스마스 썰의 研究」(『대한우표회회보』127, 대한우표회, 1961), 5-8쪽 ; 현광열, 「크리스마스 썰 얘기」(『새가정』11-12, 새가정사, 1968), 27쪽 ; 송호성, 「크리스마스 썰」(『새가정』166, 새가정사, 1968), 34-35쪽 ; 이희대, 『久遠의 醫師像』(博愛出版社, 1974), 265-267쪽 ; 장완두, 「表現技法으로 通해 본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연구」(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공예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미국폐협회 저/조근수 역, 「“크리스마스썰”이라는 이름의 십자군」(『보건세계』39-10, 대한결핵협회, 1992), 8-11쪽.

다 명확한 한일관계의 일 단면을 규명하는 것도 試論的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위 속에서 위의 내용을 검토해보겠다.

## 2. 1932년 '씰'의 탄생과 일본의 도안 통제



[자료1] 세계 최초의 덴마크 씰(미사용)



[자료2] 세계 최초의 덴마크 씰(사용)  
1904.12.24)

한국의 '씰'을 살피기에 앞서 우선, 세계 최초의 '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초의 '씰'([자료1]·[자료2])<sup>8)</sup>은 어린이를 좋아했던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우체국장이었던 아이날 홀벨(Einar Holboell)에 의해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유럽 지역에는 결핵이 만연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었는데, 이 때 홀벨은 우편물과 소포를 정리하던 중 우편물에 소액의 '씰'을 붙여 보내도록 하면 그 판매대금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1904년 12월 10일에 최초의 '씰'을 제작하였던 것이다.<sup>9)</sup> 이후 당시 덴마크 국왕이었던 크리스천 9세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덴마크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다대한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아이슬란드·스웨덴·독일·노르웨

- 8) 세계 최초의 덴마크 크리스마스 씰(사용제와 미사용제, 필자 소장). 이하 특별히 소장처를 명기하지 않은 자료는 필자가 소장한 것이며, 필자가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소장자나 소장처를 명기한다.
- 9) 대한결핵협회, 『한국의 크리스마스 씰』(대한결핵협회, 2010), 10-11쪽 ; 대한결핵협회, 『한국의 크리스마스 씰』(대한결핵협회, 2013), 8-13쪽 ; 대한결핵협회, 『세계의 크리스마스 씰』(대한결핵협회, 1989), 참조. 이하 세계의 크리스마스 씰에 대한 내용은 상기 자료들을 참조.

이·이태리에 퍼졌고, 1907년에는 미국, 1925년부터는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중동지역에까지 확산되었다. 아시아에서는 1910년 필리핀이 처음으로 ‘씰’을 발행하였으며, 뒤를 이어 일본이 1924년 일본결핵협회에서 ‘祝 健康’이라는 문자가 삽입된 ‘씰’이 발행되었고, 이어서 1925년에 自然療養社라는 민간잡지사에서도 ‘씰’을 발행함으로서 ‘씰’에 의한 결핵퇴치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씰’이 발행되었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최초의 ‘씰’은 1932년 감리교 선교사 셔우드 홀이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기금의 모집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먼저 황해도지사 등이 포함된 ‘크리스마스 씰 위원회’(위원회 의장은 셔우드 홀)를 구성하여 海州救世療養院에서 발행하였다.<sup>10)</sup> 그는 자서전에서도 1932년 첫 ‘씰’이 발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씰’로 인쇄된 도안은 남대문이었지만, 원래의 도안은 거북선이었다는 점, 또 그 과정에서 일본의 압박과 통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홀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자료3]

- ⓐ나는 씰의 도안이 반드시 조선의 민중들에게 열성과 가능성을 부채질 할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선 사람들은 세계 최초로 철갑을 입힌 군함을 만들어 적의 군함을 크게 무찔러 승리한 적이 있었다.  
 ⓑ영국 어린이들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유명한 해전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조선의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지치지 않는다. 이 거북선은 일본군들이 기어오를 수도 불태울 수도 없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거북이 모양으로 생기고 무장이 잘된 전함들을 이끌고 이순신 장

10) Sherwood Hall, *THE STORY OF KOREA'S FIRST CHRISTMAS SEAL*, Y.M.C.A Press, 1932, pp.5-15. ;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20쪽.

군은 1592년 진해만에서 일본 해군의 대전함들을 무찔렀다. ④이런 의미에서 썰의 도안을 거북선으로 하면 즉각적인 민중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도안한 썰의 거북선은 국가의 적인 결핵을 향해 발포되도록 대포를 배치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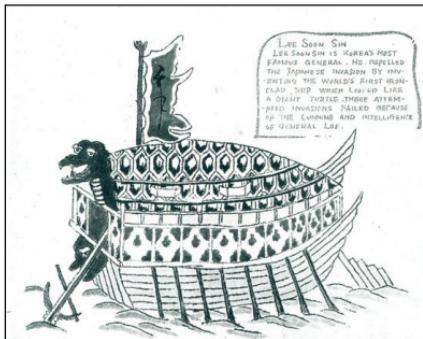
위의 [자료3]의 밑줄 ④로부터 홀 박사가 ‘썰’의 도안이 조선 사람들에게 열성과 가능성을 부채질할 수 있는 그림이어야하고, ⑤로부터 이러한 도안으로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동시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일본 해군을 무찌른 것이 거북선(Tortoise Boat)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아 밑줄 ④에서는 이러한 거북선 도안은 조선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한국 최초의 ‘썰’로서 거북선 도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한, 거북선의 대포가 결핵이라는 적을 향해 발사하도록 배치해 ‘썰’ 제작의 목적이 결핵 퇴침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홀 박사의 『The Story of Korea's First Christmas Seal』<sup>12)</sup>에 의하면 각 지역별 ‘썰’의 판매 상황과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썰’의 효과적인 판매 방법과 이를 통한 결핵퇴치 자금의 확보를 위해 거북선 도안을 고려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최초의 거북선 도안은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1991년 10월에 ‘썰’ 수집가 서원석이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홀 박사의 ‘썰’ 자료를 조사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료4]의 거북선 도안이다. 서원석의 「미국 스민소니언 박물관 탐방기-홀 박사가 기증한 한국 크리스마스 썰을 찾아서」<sup>13)</sup>라는 논문과 전술한 개인자

11) 셔우드 홀, 앞의 책, 517-518쪽.

12) Sherwood Hall, ibid., pp.5-15.

13) 서원석, 「미국 스민소니언 박물관 탐방기-홀 박사가 기증한 한국 크리스마스 썰을 찾아서」(『보건세계』40-6, 대한결핵협회, 1993), 12-17쪽. 도안의 원쪽 상단에는 “이순신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다. 그는 커다란 거북이와 같이 생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발명하여 일본의 침략을 격퇴시켰다. 이순신 장군의 노련함과 지혜로 인해 세 번의 침략 시도는 실패로 끝났



[자료4] 스미소니언박물관 소장의 쌀 도안



[자료5] 『닥터 홀의 조선회상』에 수록된 쌀 도안

료집에 의하면 이 도안은 서원석이 복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홀 박사의 『닥터 홀의 조선회상』에 의하면, [자료5]<sup>14)</sup>의 거북선 도안이 제시되고 있다. 양쪽 도안이 약간 상이하지만, 서원석의 「한국의 크리스마스 쌀」에 의하면, 직접 스미소니언박물관을 견학하여 복사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 홀 박사가 소장한 '쌀' 자료는 1972년 12월 15일에 모두 스미소니언박물관에 기증되고 있다는 점, 홀 박사의 자서전에 수록된 [자료5]의 도안 설명문에 “철갑 전투함의 모사본”<sup>15)</sup>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자료4]의 거북선 도안이 원래의 도안이다.

그러나 이 거북선 도안은 일본의 통제로 인해 '쌀'로 발행되지 못했다. 그것은 홀 박사의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Lee Soon Sin is Korea’s most famous general. He repelled the Japanese invasion by inventing the world’s first ironclad ship which looked like a giant turtle. Thbee[원문 그대로지만, ‘Three’의 오기로 생각됨] attempted invasions failed because of the cunning and intelligence of general Lee.)

14) 닥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18쪽.

15) 상동. “The ‘Tortoise Boat’-replica of ironclad battleships used by Korea against Japan in Jinhai Bay in 1592.”

## [자료6]

서울에 머무는 동안 나는 처음 시도하는 크리스마스 셀의 발행허가를 정부[총독부]로부터 받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특히 동양에서는 전례가 없는 이러한 일에 대해 상당히 시간이 기다려야 허가가 난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일본 관리 중에 나와 친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오다 야스마[원 번역문에는 오다 야스마츠]’로 외무성의 영국 담당이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셀에 대해 가장 협조적인 사람 중 하나였다. 최선을 다해 발행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가 최초로 도안한 셀을 보여주자 그는 단 한마디로 “안 된다.”고 했다.<sup>16)</sup>

즉, [자료6]의 밑줄을 보면, 일본관리 외무성 영국담당이라고 하는 ‘오다 야스마’란 사람에게 거북선 ‘셀’의 도안을 보여주자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다 야스마’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원문 자서전에는 영문으로 ‘Mr. Yasuma Oda’로 표기되어 있어 지금 까지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의 1932년도 부분을 보면 오다 야스마(小田安馬)라는 인물이 조선총독부의 통역관으로서 총독관방 외사과에 근무하고 있었고,<sup>17)</sup> 『朝鮮人事興信錄』에 의하면 그는 1892년생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한 후, 1922년 5월 조선총독부의 초빙에 의해 한국으로 건너와 종교 사무와 외사에 관한 촉탁업무를 하고 있다가 1926년부터는 총독부의 통역관에 임명되어 외국관계

16)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17쪽. 참고로, 자서전의 번역문에는 ‘오다 야스마’가 ‘오다 야스마츠’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Mr. Yasuma Oda’로 되어 있어 ‘오다 야스마’가 정확한 이름이다(Sherwood Hall,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MCL Associates, 1978. p.434.). 인용문 중의 ‘[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17)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32년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람(<http://db.history.go.kr/>).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또한, 오다 야스마가 1932년 3월 31일에는 총독부의 통역관으로서 외사업무를 중심으로 한 ‘高等官四等’이라는 고위직에 임명되었고,<sup>19)</sup> 통역관으로서 외국인 관련이나 선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홀 박사가 언급한 오다 야스마는 통역관 오다 야스마(小田安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오다는 ‘영어의 귀재’로 불리기도 했으며, 일본의 패망 후에도 한국에 남아 미군과의 통역이나 번역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sup>20)</sup>

한편, 홀 박사는 자서전에서 오다가 거북선 도안을 단호히 거절한 이유와 남대문 도안으로 변경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자료7]

오다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런 도안은 결코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①그림에서 대포가 겨냥하고 있는 적을 보면서 지난날의 일본 목조 전함들의 패전을 연상했던 모양이었다. 일본은 근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을 정복하기 이전에 거북선에 패한 사실을 되새기기 싫어했다. 조선인에게 패배 당했음을 상기시켜주는 이 거북선 도안을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②오다는 외교적인 태도로 ‘일본과 조선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도안을 새로 만들어 오라.’고 했다. 오랫동안 조선 친구 일본 친구들의 의견도 묻고 심사숙고한 끝에 전보다 드라마틱한 것은 훨씬 떨어지지만 역사적인 서울의 남대문으로 결정했다.<sup>21)</sup>

위의 [자료7]의 밑줄 ①를 보면, 오다가 거북선 도안은 결코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진왜란 때에 일본 군선들이 거북선에 패전을 당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상기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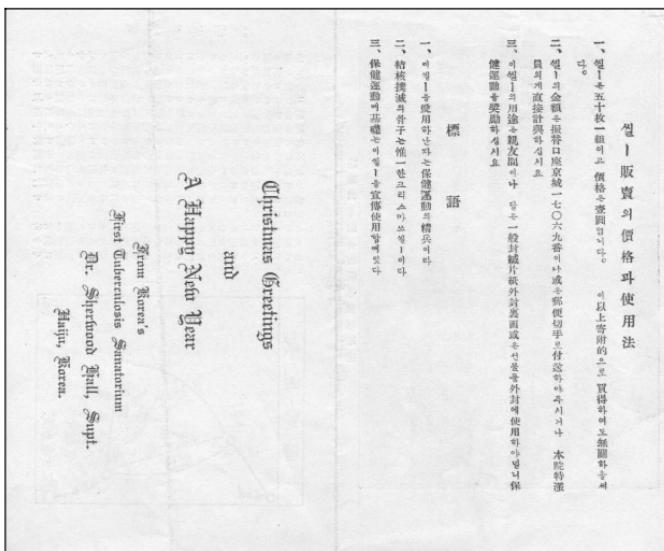
18)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朝鮮人事興信錄』(朝鮮總督府, 1935), 73-74쪽.

19) 『朝鮮總督府官報』제1571호(6면, 1932년 4월 5일).

20)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巖南堂書店, 1964), 268쪽.

21)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17쪽.

는 거북선에 대해 결코 일본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은 허가상의 문제를 표면적인 이유로 들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수정될 때까지 활동을 정지하라는 통보를 했으며,<sup>22)</sup> 밑줄 ⑤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결국은 오다의 새로운 도안을 작성하라는 요구에 따라 홀 박사는 심사숙고 한 끝에 남대문을 첫 ‘씰’의 도안으로 결정했다.



#### [자료 10] 1932년 「쌀-販賣의 價格과 使用法」

이 남대문에 대해 홀 박사는 “남대문은 조선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그림이다. 지브롤터의 바위처럼 이것은 조선의 방위력을 나타내므로 크리스마스 썰에 나타난 남대문은 결핵을 방어하는 성루임을 상징한다.”<sup>23)</sup>고 설명하고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일본의 허가를 받아 [자료8]에 보이는 바와 같이 ‘海州救世療養院’을 명기한 위에 ‘YMCA인쇄소’

22) 닉터 셔우드 흘, 앞의 책, 520쪽.

23)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19쪽.

에서 남대문 도안으로 최초의 ‘셀’이 발행되었다. ‘셀’은 1매당 2전의 가격이 책정되었으며([자료10]),<sup>24)</sup> 그 구성은 셀첩(Booklet, 5×2×5, 50매)으로 제작되었고(당시 전지는 미확인, 재판전지:5×5, 25매), ‘크리스마스 셀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금 용 편지 등도 만들어졌다.

홀 박사의 자서전에 의하면 발행일은 1932년 12월 3일로서 ‘셀’을 제일 먼저 구입한 사람은 그 유명한 배재학당의 헨리 아펜젤러 목사였는데,<sup>25)</sup> 1936년에는 같은 디자인으로 재판([자료9])이 발행되고 있다.<sup>26)</sup> 다만, 본고와 관련해 중요한 논점은 1932년 초판 ‘셀’의 원래 도안이었던 거북선이 총독부의 통제와 간섭에 의해 결국은 남대문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정치적 의도가 전혀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퇴치를 위한 순수한 크리스마스 ‘셀’의 제작이라도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삽입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요소도 용납될 수 없었던 당시의 통제된 사회상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자료8] 1932년 셀 초판



[자료9] 1932년 셀 재판(1936)

24) 「셀-販賣의 價格과 使用法」(남상욱 소장). 이 자료는 1932년에 발행된 연하카드를 겸한 일종의 「셀 발행 안내장」으로 여기에는 「셀-販賣의 價格과 使用法」이 위의 그림과 같이 인쇄되어 있는데, “一, 셀-은 50매가 一組이고, 가격은 1원입니다. 이 이상 구입하여도 무관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셀첩(5×2×5=셀 50매) 1개가 1원이었기 때문에 ‘셀’ 1매는 2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5)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28쪽.

26) 남대문 초판 ‘셀’이 발행된 후 ‘셀’ 발행 5주년을 기념하여 1936년에 재판 ‘셀’이 다시 발행되고 있는데, 그간 1937년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남상욱에 의해서 1936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남상욱, 앞의 논문(‘셀 단상(斷想)-한국 최초의 셀 이야기)을 참조.

### 3. 1933년~1939년 '씰'의 제작과 발행

1932년 12월 3일에 발행된 최초의 남대문 도안의 '씰'은 12월초부터 '크리스마스 씰 위원회'의 보급 선봉대에 의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자서전에 의하면 씰 판매와 홍보를 위한 마지막 선봉대가 돌아온 것은 정월 초하루가 지난 2월 하순경이었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보다 구정 때에 '씰'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며, 판매량도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더 많았다고 한다.<sup>27)</sup> 아무튼 '씰'의 판매를 위한 홍보물의 제작과 신문을 통한 '씰' 운동의 홍보가 실시되면서 한국에서의 '씰'은 서서히 정착되어 갔다.

첫 해의 크리스마스 '씰' 운동은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어 경비를 제외하고도 170달러의 이익금이 남아 이 금액을 '조선의료선교회'에 넘겼고, '조선의료선교회'에서는 결핵퇴치에 힘쓰고 있는 평양의 연합기독병원, 여주의 영국 교회병원, 함흥의 캐나다 연합교회병원 등에 25달러씩 보조하고, 서울의 세브란스 유니언의 결핵병동과 海州救世療養院에 35달러씩 제공하고 있었다.<sup>28)</sup>

1933년도의 두 번째 '씰'부터 1939년까지의 발행된 '씰'은 한일관계라는 측면에서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지만, 일제침략기 '씰'의 전체상을 보기 위해 개요 사항만을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우선, 1933년도의 '씰'은 미국에서 1932년도에 발행된 '캐럴 부르는 소년소녀'([자료11])의 모습을 기본 도안으로 이용하여 제작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소년소녀의 의상이 한복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홀 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미국의 결핵협회에서도 도안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YMCA인쇄소'의 화가가 미국 판의 도안을 한국판의 도안으로 변경하

27)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29쪽. 따라서 발행된 '씰'의 앞면에는 '1932-1933'과 같이 2년에 걸쳐 년도가 표시되어 있다.

28) 상동.

여 발행하였는데,<sup>29)</sup> 바로 [자료12]의 ‘썰’이다.

‘썰’의 가격은 1매당 역시 2전이었고(일제침략기 발행 ‘썰’은 모두 2전), 전지(10×5), 썰첩(5×2×5)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쇄는 보진재가 담당하였다. 1932년 초기와는 달리 크리스마스 썰 엽서 대형과 소형 2종류, 퍼즐 맞추기 ‘썰’ 그림 등이 추가로 발행되었다(이하 각 ‘썰’의 구성 내용은 후술하는 [도표1] 「일제침략기 ‘썰’의 발행과 구성내용」<sup>30)</sup>을 참조). 전술한 하세가와의 도록과 이창성의 연구에 의하면 ‘썰’과 엽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에 변종의 존재가 밝혀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1934년의 ‘썰’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도안으로 삼아 ‘아기 업은 여인’을 그리고 있는데([자료13]), 영국 왕실 가족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여류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가 도안했다. 홀 박사의 자서전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썰’이 정착하자 유명한 화가들이 도안을 그려주겠다고 자청했고, 엘리자베스 키스도 그들 중의 하나였다. 그녀는 한국에 머물 때 주로 감리교 선교사들의 집을 이용했는데, 홀 박사의 어머니인 로제타 홀(Rosetta Hall) 여사를 알고 난 뒤에는 이들 모자와 친하게 지내며 이후 한국을 찾을 때마다 홀 여사의 집에 머물었다고 한다.<sup>31)</sup> 그만큼 홀 박사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썰’의 도안을



[자료11] 1932년 미국 썰



[자료12] 1933년 썰



[자료13] 1934년 썰

29)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33-534쪽.

30) 본 도표는 필자의 수집품과 하세가와 도록, 그리고 썰 수집가인 남상육님의 썰 자료 및 조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31) 송영달, 「엘리자베스 키스의 삶과 그림-한국을 중심으로」(엘리자베스 키스

자청했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속박을 받고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장인한 한국인의 모습, 그리고 한국의 오랜 전통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인의 생활상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2)</sup> 실제로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sup>33)</sup> 한국의 경치나 명승고적을 그리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인물상들이 대부분이다. 이후, 키스 여사는 후술하는 1936년과 1940년의 ‘씰’의 도안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씰’의 가격은 종전대로 매당 2전이었고, 발행 구성은 이전과 마찬가지의 형태였는데, 1934년부터는 ‘씰’ 운동의 확산과 판매의 증대를 위해 보험증권을 제작하였으며, 한지로 된 크리스마스카드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씰’ 운동은 미국에까지도 퍼졌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편지이다. 해주요양원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냈고, 이에 대해 홀 박사가 해주요양원의 ‘혜순’이라는 병에 걸린 소녀의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에게 답장을 보내자, 다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 “당신이 이야기한 소녀에 대해 관심을 표합니다. 그 소녀가 완치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답장과 함께 소녀에게도 카드를 보냈다는 점이다.<sup>34)</sup> 이 소녀는 편지를 받고 기뻐하였고, 병의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어 결

저/송영달 역,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 책과 함께, 2012), 222-223쪽.

32) 엘리자베스 키스·엘스 K. 로버트슨 스콧 저/송영달 역,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책과 함께, 2011), 7-24쪽 ; 심영옥, 「엘리자베스 키스의 시작으로 본 한국인의 모습과 풍속의 특징 분석」(『동양예술』 21, 한국동양예술학회, 2013), 48-49쪽.

33) 국립현대미술관, 『푸른 눈에 비친 엘리자베스 키스 展』(국립현대미술관, 2006) ;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배유안 글,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에서 우리 문화 찾기』(책과 함께, 2008).

34)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66-568쪽 ; Elsie Ball, *THE PRESIDENT WRITES A LETTER, HAIJU*, 씰 수집가 남상우 소장. 영문 자료는 서지사항 미상으로 이 자료는 1935년도 씰 홍보용 책자로서 9쪽의 구성되어 있으며, ‘혜순’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편지를 소제로 하고 있음.

국 후에 퇴원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에서의 ‘썰’ 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34년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썰’이 발행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의 감리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홀 박사가 도안부터 인쇄까지 모든 책임을 맡고 기념 ‘썰’을 제작한 것이다([자료14]). 이 ‘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도안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1932년의 거북선 도안은 민족정기의 표출을 문제 삼아 일본 측은 발행을 거부했지만, 한반도 도안에 대해 허가를 내린 것을 보면, 당시 ‘조선반도’라고 불렸던 한반도가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1935년의 ‘썰’([자료15])은 최신영이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인 널뛰기를 소재로 도안하였다. ‘썰’의 구성을 보면, 썰첩( $3\times 3\times 6$ )은 특이하게 3단 구조로 되어있고, 전지는  $5\times 5$ 의 구조로 발행되었으며, 썰첩 중에는 ‘홍보용 썰첩’도 발행하고 있다. 홀 박사의 자서전에는 1935년의 ‘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홍보용 책자인 『THE STORY OF KOREA'S FOURTH CHRISTMAS SEAL CAMPAIGN』<sup>35)</sup>에 의하면, 황해도 해주 도지사 정교원(Chong Quo Won)<sup>36)</sup>의 도움으



[자료14] 1934년 한국 감리교회 50주년 기념 썰



[자료15] 1935년 썰

35) THE STORY OF KOREA'S FOURTH CHRISTMAS SEAL CAMPAIGN, 1935년 ‘썰’ 홍보용 책자, 서지사항 불명, 썰 수집가 남상욱 소장. 다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썰’ 홍보용 책자는 내용상으로 볼 때 셔우드 홀이 쓴 것으로 생각된다.

36) 황해도 도지사에 대해서 원문에는 ‘Chong Quo Won’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朝鮮總督府官報』(1933년 4월 12일)에 의하면, 鄭喬源이며, 그는 1933년



[자료16] 1936년 썰



[자료17] 1937년 썰

로 ‘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보급에 대한 상황 보고와 함께 ‘썰’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36년도에는 다시 엘리자베스 키스 여사가 도안을 담당하였는데, 한국의 전통놀이인 연날리기를 소재로 삼았다([자료16]). 또한 1936년은 ‘썰’ 발행 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시트를 발행함과 동시에 엽서와 크리스마스카드 목판 인쇄본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썰’의 구성은 썰첩( $5\times 2\times 5$ )과 전지( $5\times 5$ ) 등 이전과 같은 형태였다.

1937년에는 당시 제16회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특선하여 유명해진 김기창이 팽이치기를 소재로 삼아서 그렸다([자료17]). 이때는 썰첩( $5\times 2\times 5$ ), 전지( $5\times 5$ ), 엽서, 목판 인쇄 연하장과 함께 ‘썰’ 도안을 토대로 우편봉투도 만들어지면서 ‘썰’ 운동은

자리를 잡아갔다. 홀 박사의 자서전에는 “환자들은 이 운동을 위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물론 그들의 청이 허락될 리 없었다. 그러나 글을 쓸 줄 아는 환자들은 전국 각지의 친지들에게 편지를 썼다. … 환자들은 크리스마스 썰을 많이 팔아주기도 했지만, 결핵퇴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큰 공헌을 했다. 우리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선의 저명인사들에게 수없이 서신을 띄웠으나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보낸 편지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반응을 보였다.”<sup>37)</sup>라고 언급하고 있어 환자들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썰’ 운동의 확산을 위해 ‘썰’ 우편봉투 등의 홍보물 활용이 적극적으로

부터 황해도의 道知事에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홀 박사 자서전의 번역본에는 도지사 원씨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닥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37쪽).

37) 닥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31쪽.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938년 ‘썰’은 제기차기를 주제로 1937년에 이어 김기창이 도안하였고([자료18]), 썰첩( $5\times2\times5$ ,  $4\times2\times4$ )과 전지( $5\times5$ )로 구성되었다. 엽서 2종과 목판 인쇄 연하장, 썰 우편봉투 등이 제작되었는데, 특이하게 썰첩 25매( $4\times2\times4$ , 4장 째의 7매는 한반도에 복십자 마크)짜리가 발행되고 있다.

1939년에는 그네 뛰는 처녀를 소재로 삼아 당시 조선에 건너와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호주의 장로교 목사인 에스몬드 W. 뉴(Esmond W. New)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네 하단의 풀 속에 필기체로 ‘Esmond W. New’라는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좌측 하단 나무 옆에 가로로 柳永完이란 이름과 낙관까지 있다([자료19]). 홀 박사의 자서전에도 에스몬드 박사에게 썰 도안을 부탁했다는 언급이 보이고 있다.<sup>38)</sup> ‘썰’ 구성은 썰첩( $5\times2\times5$ ,  $4\times2\times4$ )과 전지( $5\times5$ ), 엽서, 연하장, 썰 우편봉투 등이 있고, 이창성의 연구에 의하면 25매용( $4\times2\times4$ ) 썰첩을 제작하기 위한  $4\times6$ ,  $4\times10$ ,  $3\times6$ 의 테트베슈(Tete Beche) ‘썰’의 전지도 있다고 한다.<sup>39)</sup>

이상과 같이 1932년 이래 시작된 홀 박사의 결핵퇴치를 위한 ‘썰’ 운동은 시작부터 평탄치 않았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자서전에 밝히고 있듯이 1939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썰 정신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sup>40)</sup> 그러나 1940년에 들어와 ‘썰’의 발행에 대한 일본 측의 통제와 간섭, 그리고 스파이 누명



[자료18] 1938년 썰



[자료19] 1939년 썰

38)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40쪽.

39) 이창성,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8)」(『보건세계』38-1, 대한결핵협회, 1991).

40)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571쪽.

을 써운 엉터리 재판과 반강제적 출국 등의 불행을 겪게 되는데, 일제에 의한 본격적인 대륙침략전쟁이 시작될 무렵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과연 어떠한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구성	발행년	1932	1936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셀 명칭		남대문	남대문 (재판)	캐럴 부르는 소년소녀	아기 업은 여인	널뛰는 소녀	연 날리는 어린이	팽이 치는 소년	제기차기	그네 뛰는 처녀	때때웃 입은 여린이
도안자		셔우드 홀	셔우드 홀	YMCA 인쇄소 화가	엘리자 베스 키스	최신영	엘리자 베스 키스	김기창	김기창	에스몬드 W.뉴(柳永完)	엘리자베스 키스
씰첩		5×2×5	5×2×5	5×2×5	5×2×5	3×3×6	5×2×5	5×2×5	5×2×5 4×2×4	5×2×5 4×2×4	5×2×5 4×2×4 (초판본)
전지	초판본은 확인불가	5×5 5×8 15×8	10×5	10×5 5×12	5×5	5×5	5×5	5×5	5×5 4×6 4×10, 3×6	5×5 4×6 4×10, 3×6	5×5(재판) 초판본은 확인불가
폐인		5×2	5×2	5×2	5×2	3×3	5×2	5×2	5×2 4×2	5×2 4×2	5×2 4×2(초판)
엽서(대)				○	○	○	○	○	○	○	
엽서(소)				○	○	○	○	○	○	○	
한지 연하장					○	○					
복판 연하장					○	○	○	○	○	○	○
셀 카드				○	○	○		○		○	○
모금용 편지	○			○	○	○	○	○	○	○	○
셀 봉투	○			○	○	○	○	○	○	○	○
영문홍보책자	○			○	○						
도안 설명서							○	○	○	○	
대형 포스터					○	○	○	○ (대/소)	○		
미니 포스터						○	○				○
특기 사항				셀 퍼즐 맞추기	보건증권	홍보용 씰첩	씰 발행 5주년기 념씰				달력
인쇄	YMCA 인쇄소	보진재	보진재	보진재	보진재	보진재	보진재	보진재	보진재	보진재	보진재

[도표1] 일제침략기 '씰'의 발행과 구성내용

#### 4. 1940년 일제침략기 최후의 ‘썰’과 일본의 도안 통제

1938년에 홀 박사는 두 번째 안식년 휴가를 받아 일본과 호놀룰루를 경유해 캐나다의 밴쿠버로 출발하는데, 자서전에는 1938년 7월 27일 일본을 출발하여 1939년 3월 11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sup>41)</sup>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일본은 모든 공문서에서 서력 사용을 금지시키고, 일본 연호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었으며, 당시 한국에 있던 서양 사람들에 대한 군부의 감시와 통제도 강화되어 외국인 선교사 활동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를 김승태와 양현혜는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바로 위의 시기를 제5기인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과 추방기(1936년~1945년)’<sup>42)</sup>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일본과 서양 선교사 국가들과의 관계는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폭발 직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홀 박사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서전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자서전을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1940년의 ‘썰’ 발행과 홀 박사의 반강제적 추방에 대해 살펴보겠다.

1940년 해주 주변에서는 구세요양원을 일본군이 접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거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40년 여름 휴가를 갔을 때인 8월 첫 주일에는 선교사였던 캐럴 신부와 함께 화진포의 별장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본 현병들이 캐럴 신부를 체포해 4일간

41)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639쪽. 한편, 「동아일보」(1938년 6월 11일자)에 의하면, 홀 박사가 캐나다로 귀국했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6월 11일 이전에 한국을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42) 김승태/양현혜, 「한말 일제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1894-1910)」(『한국기독교와 역사』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67쪽.

구금했으며, 그 과정에서의 모든 비용까지도 캐럴 신부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당시 일본 군부에서는 해발 20미터 이상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헌병이 고의로 캐럴 신부에게 사진을 찍게 하여 체포하려고 하는 형국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진포에 있던 홀 박사는 요양원 일로 해주로 돌아 오라는 수상한 전보를 받고 해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화진포로 돌아가려고 열차를 타려는 순간, 헌병에 체포되고 말았다. 체포 이유는 스파이 혐의였지만, 단순히 캐럴 신부와 친하다는 점, 또 20미터 높이 이상에서는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해주의 해안을 촬영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해주는 해안가 도시였고, 3년 전인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발발했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홀 박사도 자서전에 해주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로 변해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된 사진은 해안담당관과 육군의 허가를 받은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사진은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찍었던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일단 방면이 되었다.

이후 홀 박사는 경찰과 헌병에 의해 미행과 더불어 편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고, 수차에 걸쳐 가택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본 군부의 통제는 비단 홀 박사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에 있던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와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이들 국가의 선교사와 관련국가의 외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였고, 결국은 태평양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일본 제국주의 모순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씰’ 운동은 계속되었고, 이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에 확산되면서 결핵 치료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즈음에 홀 박사는 ‘씰’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씰 위원회에 넘기고 있다.

한편, 1940년의 ‘썰’은 엘리자베스 키스가 또 다시 도안을 맡게 되었는데, 색동옷을 입은 두 명의 귀여운 아이들을 그린 것으로 배경은 눈이 쌓인 높은 산이었다([자료21]<sup>43)</sup>). 이 도안은 일본의 관할 행정청에서도 허가를 해주었고, 모든 이들도 흡족했기 때문에 즉시 발행하였다.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썰첩(4×2×4, 7매는 라벨)은 확인되고 있으나, 전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44)</sup> 그러나 일본 군부는 현병대를 파견해 예고도 없이 이미 인쇄까지 끝낸 보급 직전의 ‘썰’을 전부 압수해갔고, 현병대의 눈을 피해 남은 것은 겨우 몇 장의 ‘썰’뿐이었다.<sup>45)</sup> 군부에서 압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자료20]

ⓐ 육군에서는 이 도안이 국방 안보의 규정을 어겼다고 보았다. 첫째로 두 조선 아이들 그림이 지적되었다. 어째서 두 천진한 아이들이 국방을 위협한다고 생각되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아이들이 일본의 막강한 군대에 무슨 해를 미친단 말인가. ⓑ 다음은 야만스러운 태도로 눈 덮인 흰 산과 그 밑에 있는 마을을 지적했다. 높이 20미터 이상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육군의 규정을 알지 못했느냐고 헐책했다. 현병들은 썰이 그대로 보급되었다면 나는 법정에서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고로 썰이 보급되기 전에 압수한 것은 바로 내 입장을 유리하게 봄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셋째로는 썰에 ‘1940-1941’년이라는 서기 연호를 삭제하라는

43) 남상욱 소장.

44) 남상욱, 「썰 단상(斷想)-일제시기 1940년 썰 도안의 미스터리(2회)」(『보건 세계』632, 대한결핵협회, 2010), 36-41쪽. 여기서 남상욱에 의하면, 1940년 초판 ‘썰’의 경우, 전지도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45) 현재까지 초판 ‘썰’은 하세가와에 의하면 2006년 시점까지 전 세계적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 47매뿐이 없으며, 미확인을 포함해서 55매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Stephen J. Hasegawa, ibid., pp.29-30.), 남상욱은 60-70매의 ‘썰’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남상욱, 「썰 단상(斷想)-일제시기 1940년 썰 도안의 미스터리(1회)」, 『보건세계』631, 대한결핵협회, 2010, 35-39쪽).

것이었다. 1940년은 일본 건국 2600년에 해당하는 해다. ‘위대한’ 일본 제국이 건국되고도 한참 지나서 서기 연도가 생겼다는 것이다.<sup>46)</sup>

위의 [자료20]을 보면, 1940년의 초판 ‘씰’(미발행, 이후 초판 ‘씰’로 통칭함, [자료21])<sup>47)</sup>이 안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밑줄 ①에서는 첫째 이유로 도안 속의 조선의 두 아이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씰’을 발행한 사례로 볼 때,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나 소년소녀들을 도안으로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1940년만이 예외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아마도 전쟁이 고조되는 분



[자료21] 1940년  
압수당한 초판 씰



[자료22] 1940년 재판  
씰

위기 속에서 1937년부터 실시된 ‘內鮮一體’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 일체를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밑줄 ②에서 두 번째 이유로 도안에 보이는 눈 덮인 흰 산과 그 밑에 있는 마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도 20미터 이상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본식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1940-1941년이라는 서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그러나 어린아이, 눈 덮인 산과 마을, 서력 연도의 사용 등은 이미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것을 군부가 억지로 문제 삼은 것이며, 1934년부터 1939년의 씰 배경에 모두 높은 산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특히, 서력은 이미 1932년부터 1939년까지의 ‘씰’에 문제없이 사용해왔었다.

46) 닉터 셔우드 흘, 앞의 책, 681-682쪽.

47) 이 씰은 씰 수집가 남상욱 선생이 소장한 것이며, 2013년 10월 13일(일)에 남상욱 선생의 댁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고 촬영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막무가내 식의 통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부의 대응에 대해 홀 박사는 결국 ‘쌀’의 도안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키스 여사에게 도안의 변경을 부탁해 최종적으로는 도안 전체에 대문을 만들고, 그 대문 안에 초판의 도안, 즉 대문 안에 어린아이 두 명을 그려 넣은 그림으로 최종 확정하여([자료22]), 쌀첩( $5\times 2\times 5$ )과 전지( $5\times 5$ ), 엽서와 연하장 및 미니포스터 등을 제작하게 되었다.<sup>48)</sup>



[자료23] 1940년 쌀첩의 앞면(서력 연도 확인 가능)

한편, 초판 ‘쌀’ [자료21]과 재판 ‘쌀’ [자료22]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변경된 것이라고는 대문의 삽입, 산 밑 마을 모양의 약화, ‘保健’ 자의 위치를 원쪽 상단에서 하단으로 변경, 엘리자베스 키스 여사의 서명 삭제,<sup>49)</sup> ‘1940-1941’의 서력 연도를 9번째 ‘쌀’의 발행이라는

48) 대한결핵협회, 『한국의 크리스마스 쌀』(앞의 책), 34-35쪽 참조.

49) 이것은 홀 박사가 키스 여사에게 도안 변경을 부탁했을 때, 도안이 변경될 경우, 절대 자신의 서명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닥터 셔우드 홀, 앞의 책, 6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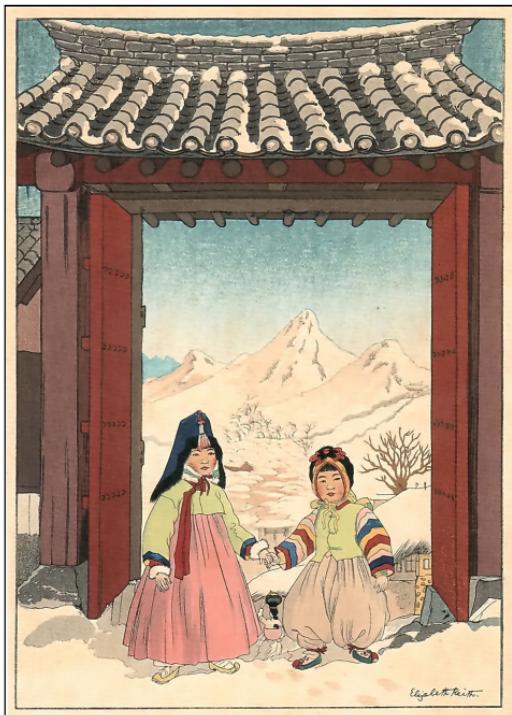
의미를 부여하여 'NINTH YEAR'로 바꾸었을 뿐 전체적인 모양은 대부분 그대로였다. 실제로 [자료22]에 보이는 재판 '씰'이 발행되었을 당시의 씰첩 앞면([자료23])을 보면 서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초판 '씰'에 사용된 서력 연도의 문제는 일종의 트집에 지나지 않았다. 또, 군부가 그렇게 엄격히 통제했던 20미터 이상의 높은 산도 그대로였고, 일본의 연호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검열관은 재판 도안을 그대로 승인을 했는데, 이를 보면, 1940년 초판 '씰'의 압수는 단순히 외국인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일종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키스 여사의 도안에 대한 사항이다. 즉, 키스 여사의 1940년 재판의 도안이 이때 처음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1919년에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상육도 언급하고 있지만,<sup>50)</sup> 키스 여사가 동생과 함께 1919년 3월 28일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당시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때에 재판에 보이는 대문 안의 「두 명의 한국 아이들」도 그렸던 것이다. 이 그림은 1925년에는 채색목판화로 만들어졌으며, 1935년까지 리프린트되고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다.<sup>51)</sup>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919년에 완성되어 있던 그림이 초판 '씰'의 도안이 아니라, 재판 '씰'의 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1940년의 초판 '씰'의 도안은 1919년에 그려진 도안에서 거의 대문만을 삭제한 것이었으며, 초판 '씰'이 일본 군부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자 도안을 변경할 때에는 1919년의 그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

50) 각주 44번) 참조.

51) Richard Miles, *ELIZABETH KEITH-The Printed Works*, Pacific Asia Museum, 1991, p.46.

실제로 [자료24]<sup>52)</sup>는 1925년에 제작된 채색목판화인데, 1940년 초판 ‘썰’과의 차이점은 대문의 유무와 두 명의 어린 아이 사이에 아주 작게 보이는 물동이를 이고 아기를 업은 여인이 없다는 점으로 거의 똑 같은 도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919년에 그려진 키스의 「두 명의 한국 아이들」에서 대문과 아기 업은 여인을 삭제한 후 1940년 초판 ‘썰’의 도안을 제작했으며, 초판 ‘썰’을 압수당하자 다시 1919년의 원래 대문이 있던 도안을 이용하여 초가집 등의 일부 배경만을 변경하고 재판 ‘썰’을 만들었던 것이다.



[자료24] 「두 명의 한국 아이들」(1925년, 채색목판화,  
337mm × 222mm)

52)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38쪽.

이렇게 1919년의 도안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1940년에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 및 탄압이 강화되고 있었고, 또 키스 여사도 초판 ‘씰’이 압수된 이후에 새로운 도안을 그리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편의상 이전의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배경의 일부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홀 박사는 육군검열관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YMCA 인쇄국에 인쇄를 주문하였고, 이것이 일제침략기의 마지막 ‘씰’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홀 박사는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0년 재판 ‘씰’을 제작한 직후 일본 현병들에 의해 다시 가택 수사를 당하였던 것이다. 경찰이 이미 조사를 다했다는 말에 현병대는 화를 내며 수사를 중단했지만, 같은 날 지인인 사사키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홀 박사에게 언급하고 있었다.

[자료21]

ⓐ 육군 현병대에서는 마침내 당신에 대한 스파이 혐의는 포기했지만, 해주 법원으로 이 건을 이첩시켰습니다. 이것은 희소식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소식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재판이 있기 전이라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이런 재판을 당신들은 ‘캥거루 코트(Kangaroo Court)’라고 부르겠지요. 당신들 두 분이 3개월 감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1천 달러를 준비해 지불해야합니다. 육군 현병대는 체면이 크게 손상당했습니다. 제 시할 증거는 없었지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네 건을 사법재판소에 넘긴 것입니다. 판사는 형을 가볍게 부르면 육군에서 제소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한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sup>53)</sup>

즉, [자료21]의 밑줄 ⓑ에 의하면, 홀 박사에 대한 현병대의 스파이 혐의는 풀렸지만, 사건이 해주 법원으로 넘겨지고 있고, 일단 생명의

53)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684쪽.

위협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밑줄 ⑥를 보면, 이른바 ‘캥거루 코트(Kangaroo Court)’라고 불리는 날조된 재판에 의해 3개월의 감옥, 또는 1천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졌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육군 헌병대가 가택수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체면 손상을 이유로 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군부를 두려워했던 판사의 결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40년이라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경찰보다는 군부의 영향이 강화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결국 홀 박사는 재판에서 스파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21]에 보이는 바와 같은 징역 3개월 또는 1천 달러의 벌금형을 언도받았는데, 홀 박사는 육군의 집요한 압력이 없었다면 무죄를 받았을 것이라는 말도 후에 듣고 있었고,<sup>54)</sup> 또, 홀 박사 가족의 출국에 즈음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스파이 혐의가 조선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와 친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sup>55)</sup> 사이토는 3대(1919~1927)와 6대(1929~31) 총독을 지냈고, 후에 일본의 제30대 内閣總理大臣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1936년 2월 26일 군부의 황도파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 사건, 즉 ‘2.26 사건’으로 이미 암살되었으나, 육군 헌병대는 ‘반군부파’였던 그와 홀 박사의 관계를 의심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2.26 사건’ 이후부터 군부는 일본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점들은 차치하고라도 당시 홀 박사에 대한 탄압 그 자체와 형량의 언도가 군부의 영향력 하에서 자행되고 있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중 1940년 10월 9일에 미국정부는 한국 내의 미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철수하라는 훈령을 내렸고, 이를 위해 11월 6일에 두 척의 여객선을 제물포에 파견한다는 소식을 홀

54)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687쪽.

55)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695쪽.

박사는 접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 총영사인 제럴드 펍스(G. H. Phipps)도 월말까지 영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훌 박사는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는데,<sup>56)</sup> 실제로 1939년에 이미 유럽에서 독일에 의한 침략전쟁이 시작되었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에 의한 전쟁이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무성은 1940년 5월 15일자로 “전쟁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그곳을 떠나도록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sup>57)</sup>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에서도 미국 영사의 권고를 받아 선교사의 부분적 철수, 즉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들의 철수와 건강이 좋지 않은 선교사들의 앞당긴 휴가 등을 승인하는 전보를 1940년 10월 21일자로 보내고 있었으며, 미국 감리교 선교부실행위원회도 22일자로 잔무처리 위원 5명만 남기고 전원의 철수에 대한 결정 사실을 미국 선교본부에 전보로 알리고 있었다.<sup>58)</sup> 자서전에는 11월 중순 마리포사(Mariposa) 호가 219명의 미국인을싣고 한국을 출발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sup>59)</sup> 이들이 철수하게 된 이유는 일제의 선교사 교회에 대한 탄압과 전쟁발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의 철수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sup>60)</sup>

그러나 훌 박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를 떠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기에 1932년 ‘썰’의 남대문 도안을 변경토록 했던 오다 야스마(小田安馬)를 만나 상담을

56) 닉터 셔우드 훌, 앞의 책, 689쪽.

57) The Korea Mission Field, *The Basis of Withdrawal*, The Korea Mission Field, March, 1941, p.34.

58) 김승태,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에 대한 소고」(『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7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52쪽.

59) 닉터 셔우드 훌, 앞의 책, 691쪽.

60)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 -미국국무성극동국문서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497-499쪽 ; 김승태, 앞의 논문, 52쪽.

하게 되었다. 이때 오다의 견해, 즉 군부의 압력만이 재판을 좌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법정에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상소하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언급<sup>61)</sup>에 따라 벌금을 내고 출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출국을 즈음해 미국의 선교위원회로부터 인도에서의 선교활동에 대한 권유도 있었기에 즉시 회답을 보내 인도 행을 결정했고, 결국 조선에서의 약 24년간에 걸친 봉사와 격동의 시간을 뒤로 하고, 1940년 11월에 부산항을 출발해 한국을 떠났다. 이로써 셔우드 홀에 의해 1932년부터 발행된 크리스마스 쌀은 1940년 9번째 ‘쌀’의 발행을 끝으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문창모 박사가 ‘한국복십자회’의 이름으로 ‘쌀’을 발행한 1949년까지 9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 5. 맷음말

본고에서는 셔우드 홀과 그가 제작한 1932년부터 1940년까지의 크리스마스 쌀을 소재로 삼아 ‘쌀’의 발행 과정 속에 일본의 어떠한 통제가 있었는지를 1932년과 1940년의 쌀 도안 변경을 통해 검토해 보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셔우드 홀 박사가 海州救世療養院에서 1932년에 발행한 첫 번째 ‘쌀’은 원래 거북선 도안이었지만, 일본 측의 승인 거부로 인해 남대문으로 변경되었고, 여기에 한국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하는 일본의 통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홀 박사는 거북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때 일본군을 무너트린 가장 대표적인 군사력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결핵이라는 적을 물리치는 소재로서 도안을

61)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690쪽.

설정했으나, 일본 측은 거북선의 민족적이고 반일적인 성격을 문제 삼아 거북선 도안 ‘씰’의 발행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씰’ 발행의 목적을 볼 때, 당연히 결핵퇴치를 위한 순수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지만, 반일적인 요소나 식민지였던 한국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씰’이라 할지라도 용인될 수 없었던 당시의 통제된 사회상의 일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통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일본 측의 인물이 바로 일본 총독부에서 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오다 야스마(小田安馬)라는 고위 통역관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밝혀냈다.

둘째는 1940년 일제침략기의 마지막 ‘씰’의 발행과정에 보이는 일본 군부의 도안 통제와 홀 박사의 반강제적 추방에 관한 문제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래로 1940년에 들어와서는 침략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직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었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체포 구금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1940년에는 홀 박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데, 이 때 발행된 ‘씰’ 또한 마찬가지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1940년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씰’의 인쇄까지 끝마쳤으나 군부에서는 이를 전부 압수했고, 압수한 이유는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씰’ 도안상의 두 어린아이, 높이 20미터 이상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눈 덮인 산과 마을, 서력 연도의 사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든 홀 박사에게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씌워 처벌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에는 홀 박사와 반군부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전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와의 관계를 의심한 육군현병대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초판 ‘씰’의 도안 변경은 ‘씰’ 전면에 대문을 설정하고, 서력을 ‘NINTH YEAR’라는 아홉 번째 ‘씰’을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 ‘씰’의 도안 통제와 도안 변경에 관한 일본 군부의 압박은 홀 박사를 탄압하기 위한 피상적인 것이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홀 박사에 대한 스파이 혐의는 군부에 의해 재판으로 넘겨졌고, ‘캥거루 코트(Kangaroo Court)’라고 불린 이 엉터리 재판에서는 벌금 1,000달러의 판결을 받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벌금을 내고 있다. 당시 일본 군부의 외국인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반강제적 추방을 염두에 둔 탄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미국의 선교위원회로부터 인도로의 선교활동에 대한 권유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전쟁에 즈음하여 미국인에 대한 본국송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출국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에서 계속적인 의료와 선교활동을 목표로 두고 있었던 홀 박사에게 일본 군부의 탄압과 통제는 결과적으로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썰’의 중단을 초래했다.

끝으로 그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는 해주에서 환송연 때 한국 친구들이 준 태극기를 출국하는 부산항 근처의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가족들 다섯 명이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연급하고 있는데, 친일파가 득세했던 참혹한 시기에 필자에게 벽찬 감동을 주고 있어 여기에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 가족 다섯 명 중 네 명은 조선에서 태어났다. 메리언도 생애의 전성기를 조선에 바쳤다. 나는 가족에게 조선의 국기인 태극기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자고 했다. 우리 가족은 목소리 높여 ‘만세’를 외쳤다. 조선의 진정한 국기에 ‘만세’를.<sup>62)</sup>

62) 닉터 셔우드 홀, 앞의 책, 711쪽.

## 참고문헌

- 국립현대미술관, 『푸른 눈에 비친 엘리자베스 키스 展』(국립현대미술관, 2006).
- 金光載, 「한국 크리스마스 썰의 研究」(『대한우표회회보』127, 대한우표회, 1961).
- 김승태,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에 대한 소고」(『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7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 김승태/양현혜, 「한말 일제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1894-1910)」(『한국기독교와 역사』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남상욱, 「썰 단상(斷想)-1935년 썰의 도안자는 누구인가?」(『보건세계』57-6, 대한결핵협회, 2010).
- 남상욱, 「썰 단상(斷想)-일제시기 1940년 썰 도안의 미스터리(1회)」(『보건세계』631, 대한결핵협회, 2010).
- 남상욱, 「썰 단상(斷想)-일제시기 1940년 썰 도안의 미스터리(2회)」(『보건세계』632, 대한결핵협회, 2010).
- 남상욱, 「썰 단상(斷想)-일제시기의 썰 디자이너 “엘리자베스 키스”의 예술세계」(『보건세계』57-1·2, 대한결핵협회, 2010).
- 남상욱, 「썰 단상(斷想)-한국 최초의 썰 이야기」(『보건세계』56-5, 대한결핵협회, 2009).
- 남상욱, 「운보 김기창 화백이 썰 디자이너?」(『보건세계』57-5, 대한결핵협회, 2010).
- 南相旭, 「일제강점기 썰의 독보적인 자료 - Hasegawa Catalog」(대한우표회, <http://cafe.daum.net/KorPhilSociety/>, 2013년 8월 21일 개재).
- 셔우드 홀 저/김동열 역, 『닥터 홀의 조선회상』(좋은씨앗, 2003).
- 대한결핵협회, 『세계의 크리스마스 썰』(대한결핵협회, 1989).
- 대한결핵협회,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대한결핵협회, 2010).
- 대한결핵협회,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대한결핵협회, 2013).
- 대한결핵협회편집부, 「썰 운동의 유래와 현황」(『보건세계』38-11, 대한결핵협회, 1991).

미국폐협회 저/조근수 역, 「“크리스마스썰”이라는 이름의 십자군」(『보건세계』 39-10, 대한결핵협회, 1992).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巖南堂書店, 1964).

서원석, 「미국 스민소니언 박물관 탐방기-홀 박사가 기증한 한국 크리스마스썰 을 찾아서」(『보건세계』40-6, 대한결핵협회, 1993).

서원석,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서원석 개인자료집, 남상욱 소장).

셔우드 홀 저/김동열 역, 『닥터 홀의 조선회상』(좋은씨앗, 2003).

송영달, 「엘리자베스 키스의 삶과 그림-한국을 중심으로」(엘리자베스 키스 저/ 송영달 역,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 책과함께, 2012).

송호성, 「크리스마스 썰」(『새가정』166, 새가정사, 1968).

神學指南編輯部, 「朝鮮初有의 肺病治療所인 海州救世療養院을 紹介함」 (『神學指南』12-1, 神學指南社, 1930).

심영옥, 「엘리자베스 키스의 시각으로 본 한국인의 모습과 풍속의 특징 분석」 (『동양예술』21, 한국동양예술학회, 2013).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배유안 글,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에서 우리 문화 찾기』(책과함께, 2008).

엘리자베스 키스·엘스 K. 로버트슨 스콧 저/송영달 역,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책과 함께, 2011).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 -미국국무성극동국문서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이종학, 『肺結核:問答式』(壽文社, 1958).

이창성,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1)-(9)」(『보건세계』37-6~38-2, 대한결핵협회, 1990-1991).

이희대, 『久遠의 醫師像』(博愛出版社, 1974).

장완두, 「表現技法으로 通해 본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연구」(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 공예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朝鮮人事興信錄』(朝鮮總督府, 1935).

해주시지편찬위원회, 『海州市誌』(海州市中央市民會, 1994).

현광열, 「크리스마스 썰 얘기」(『새가정』11-12, 새가정사, 1968).

Elsie Ball, *THE PRESIDENT WRITES A LETTER*, HAIJU, 서지사항 미기재, 남상욱  
소장.

Richard Miles, *ELIZABETH KEITH-The Printed Works*, Pacific Asia Museum, 1991.

Sherwood Hall, *THE STORY OF KOREA'S FIRST CHRISTMAS SEAL*, Y.M.C.A Press,  
1932.

Sherwood Hall,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MCL Associates, 1978.

Stephen J. Hasegawa, *Dr. Sherwood Hall's Christmas & New Year Seals of Korea : 1932-1940, 개일출판물*, 2006.

The Korea Mission Field, *The Basis of Withdrawal*, The Korea Mission Field, March, 1941.

THE STORY OF KOREA'S FOURTH CHRISTMAS SEAL CAMPAIGN, 서지사항 미

기재, 남상욱 소장.

「설-販賣의 價格과 使用法」, 남상욱 소장.

「全朝鮮肺結核撲滅코져 크리스마쓰·씰 發行」, 동아일보, 1932년 11월 28일).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32년도).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朝鮮總督府官報』제1571호(6면, 1932년 4월 5일).

【日文抄錄】

日帝侵略期の宣教師シャウド・ホールと  
クリスマス・シールを通してみた  
韓日関係についての考察

申東珪

本稿は日帝侵略期の宣教師シャウド・ホールと彼が製作した1932年から1940年までのクリスマスシールを素材にして「シール」の發行過程のなかに日本のいかなる統制があり、なぜ1940年に「シール」の發行が中斷された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要約すると次の二点になる。

第一は、ホール博士が海州救世療養院において1932年に發行した最初の「シール」は、元來の龜甲船の図案から日本側の承認拒否によって南大門に変更されることになったが、ここには韓國の民族精氣を抹殺しようとする日本の統制が内在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シール」發行の目的は、当然結核退治という純粹な動機であったが、龜甲船のような反日的な要素や植民地であった韓國の民族的な自負心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要素があるならば、「シール」であっても容認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當時の統制された社會像の一斷面を伺うことができる。

第二は、1940年日帝侵略期の最後の「シール」の發行過程に見える日本軍部の図案統制とホール博士の半強制的な出國に關する問題である。1940年は日本の侵略戰爭が本格化される直前の時期であったため、韓國の國內では西洋宣教師らや外國人らに對する統制と監視が強

化されており、それによってホール博士に對する監視と統制が強化されると同時に、この時に發行された「シール」も同じく統制の對象になった。すなわち、1940年には管轄の行政廳の許可を得て「シール」の印刷まで終えたのだが、軍部ではこれを全部押收した。その理由は「シール」に描かれた二人の子供、高さ20メートル以上はみられてはいけない雪山とその下の村落、西暦の使用という根據のない強制であった。ここにはホール博士と反軍部的な立場を取っていた前朝鮮總督齋藤實との關係を疑っていた陸軍憲兵隊の意図が内在されていたが、これを念頭に置けば、「シール」の図案統制と図案変更に關する日本軍部の壓迫はホール博士を彈壓するための一種の口實であった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でホール博士が出國するようになり、韓國での「シール」は1949年に再び發行されるまでに斷絶されることになった。

### 【キーワード】

シャウド・ホール(Sherwood Hall), クリスマスシール(Christmas Seal), 海州救世療養院, エリザベス・キース(Elizabeth Keith), 小田安馬, 龜甲船, 南大門, 結核退治.